

# 국토해양부, APEC 항만보안 전문가 국제워크숍 개최

## 항만보안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의 이행과 확산 주제

국토해양부 및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주관으로 APEC 아시아 7개국 39명의 항만보안 전문가(APEC은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운영 중이며 해상보안전문가그룹 운영중)들이 모여 항만보안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의 이행과 확산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교통수단을 이용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비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여 2004년 7월 발효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동 Code의 이행을 위해 올해 2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항만보안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ISPS Code의 이행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항만보안교육기관인 STET(Singapore Technology Education & Training)가 항만보안 훈련·연습 매뉴얼(안)(Port Security Drills & Exercises Manual : ISPS Code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만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보안훈련과 합동보안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훈련연습시 활용하기 위한 지침서)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회원국 항만보안전문가의 검토와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졌다.

동 워크숍이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보안 훈련

및 연습에 관한 매뉴얼』 숙지 및 적용요령, 3개 분임별로 매뉴얼에 의한 도상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특정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실시 및 시행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여건상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보안시스템을 꾸준히 확충·개선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공급사슬망 보안(Supply Chain Management Security)의 중요한 거점인 항만의 보안과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부산 워크숍 결과는 오는 8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제31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에 보고되며, APEC은 200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항만보안훈련 및 연습 가이드라인'라는 공식의 제로 제안하여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개시

## 해외진출 투자의사결정 지원위해 KMI내 설치

국토해양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항만 및 물류센터 투자 등 해외진출 투자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KMI 내에 설립하여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7월3일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센터내에 위치한 KMI에서 동 센터의 공식출범을 알리는 개소식을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및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산은자산운용, KB자산운용), 대한통운·동부 등 물류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동 센터는 △국제물류 정보 수집 및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신규사업 검토 및 예비조사 △개별사업의 타당성 조사 △투자대상국 항만투자 관련 법제도 DB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센터를 국제물류조사팀과 투자사업분석팀의 2개팀으로 구성하고, 설립 초창기인 2008년까지는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되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 점차적으로 연구인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동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국내 물류기업들이 신규추진 사업에 대해 해당 권역의 물류현안리포트, 기초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요청시 정부에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무료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참여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12월 총 1조3,800억원 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를 조성한 바 있으며, 금번에 동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 여수세계박람회 사업 시작 엑스포타운 사업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사업 중의 하나인 여수시 덕충동 일대의 직접시설(엑스포 타운)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안)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2일 최종 확정되었다. 동 사업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관할지역 주민열람 등을 거쳐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공식사업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번에 엑스포타운(운영요원 숙박시설)에 대한 계획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은 3년9개월 남짓한 짧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박람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엑스포타운은 536,274㎡의 면적에 약 1,250세대(약 4,500실) 박람회 종사자 숙소(약 9,970명 예상)를 건립 후 민간에 분양될 예정이며, 장애인 차량 및 행사차량 등의 주차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 시설물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어 박람회 이후에는 휴양형 고급주거단지로 변모하여 남해안의 신거점공간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테라스하우스 350, 타운하우스 470, 저층형아파트 430세대 건립), 엑스포타운 부지를 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부지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보완('08.10 예정)하여 최종적인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중국 올림픽 기간 주요항만 입항선박 규제 대폭 강화

## 위험화물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통관을 제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중국의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인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위험화물에 대한 항만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hanghai, Ninbo, Qingdao, Dalian, Xingang/Tianjin항의 몇몇 위험화물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통관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방침을 담은 회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중국의 주요항만에서 위험화물의 운송 및 하역작업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일부 위험화물의 경우 하역작업 자체가 불허된다. 특히, 중국 상하이 해상안전국(MSA :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은 지난 5월20일 상하이항에서의 위험화물의 운송과 하역작업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공지문을 통해 입항선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공지문에 따르면, 2008년의 고온기간은 2008년 6월15일부터 10월10일까지로 조정됐으며, 이 기간중 해양오염 방지활동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위험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방사성, 폭발성 및 독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입항 및 하역작업 △항구 내에서 원유세정 (C.O.W) △항구 내에서 공기 정화작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벌크상태의 액체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사전주의 통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위험화물 이외에 벌크상태로 위험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이 기간중에 항만에 입항하려면, MSA의 엄격한 규제조치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항만당국은 올림픽 기간동안 위험화물의 항만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hanghai, Ninbo, Qingdao, Dalian, Xingang/Tianjin항은 몇몇 위험화물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통관을 제한한다.

한편, 베이징올림픽 기간중 모든 항만의 보안등급은 변화가 없을 것이나, Qingdao항의 보안등급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분의 요트경기가 Qingdao 수역 부근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Qingdao MSA는 지난 6월6일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공지문을 발송하고, 올림픽 기간중 △도선의 안전 △안개가 낄 경우 운항제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감독강화 △선박의 안전 및 설비 검사 등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운업계, 미국 해상운송 안전성 법안에 철저한 대비필요 컨테이너화물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 중

지난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 정부의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그야말로 완벽을 요구하면서 민감히 대처하고 있다. 이에 항만물류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관련된 화물의 철저한 검색을 위해 세계 주요 항만들은 컨테이너화물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대 해운시장중의 하나인 미국의 해운항만, 물류 정책들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에 협조치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앞 다퉈 미국 측의 법안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항만·복합운송체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 법안이 지난달 20일 미국 상원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 및 뉴저지항만청 항만안전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은 미 상원 본회의에서 '항만 및 복합운송망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상정됐으며 통상과학교통위의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 법안은 오는 2012년 7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 및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 등 모든 해상화물은 선적지에서 X-레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사, 하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제운송 화물이 기본포장 또는 적(積) 컨테이너의 선적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미국을 통과하거나 반입되는 경우 화물의 보안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공급망의 전 과정에서 화물이 안전하고 신속히 운송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법안이 발효될 시 국제운송화물의 공급망 안전과 관련, 최초로 미국

연방법체계에 의해 화물 포장, 선적 절차 등을 규정하는 셈이다.

새 규정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진행되던 화물포장 및 컨테이너선적 체계가 통합돼 미국 내에서 국제화물 운송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주측은 새 법안의 발효와 함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법안의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닌 국제화물이 운송과정에서 미국의 영토 등을 경유하는 경우 일반 해상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또 최종 목적지와 상관없이 국제화물이 미국의 관할 영토 등으로 반입될 경우 일반 포장화물과 컨테이너 적하 화물의 구분 등과 관련한 법안의 시행방향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정성을 쏟아 운물류분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법안 상정을 통해 법규화되면 선사, 포워더, 하주, 항만 등 해상운송과 연관된 대상자들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전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안전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시책에 반영되고 있어 자칫 미국측의 법규에 위반될 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과 해운항만업체, 하주 등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사전대비책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 철강원료 가격 급등으로 신조선가 상승압박 고조

## 호주의 원료탄 수출가격 전년비 3배 가량 인상

철강원료 가격상승이 조선용 강제인상으로 이어져 신조선 가격상승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의 원료탄 도입가격을 교섭 중인 일본의 철강메이커들이 최근 전년대비 3배 인상된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철강메이커들의 원료탄 도입가격이 이같이 대폭 인상될 경우 이미 체결된 금년 봄의 브라질이나 호주의 철광석 가격교섭의 결과에 더해져 철강 각사가 강제가격에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철강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인플레이 우려로 세계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조선가가 어느정도 상승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에 의하면, 호주의 원료탄 수출업체가 현재 일본의 철강 각사와 원료탄 수출가격을 톤당 350달러 이상 수준에서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배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세미소프트콜이라는 원료탄의 가격교섭에서 철강 각사는 톤당 240달러를 제안해 이 수준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도 FOB(본선인도) 가격에 비해 3.8배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일본의 철강회사들은 금년 3월에 가진 철광석 도입가격 교섭에서 브라질의 자원대기업인 바레사와 전년대비 65-71% 인상된 가격에 합의했으

며, 5월에는 호주 자원대기업과 2배 가량 인상기로 합의한 바 있다.

브라질과 호주의 가격 인상폭이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2009년 봄에 재개될 철광석 가격교섭에서 브라질 자원대기업이 급격한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강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신조선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욕·뉴저지 항만 장기전략 조사착수 북미 동안에서의 중심항만 유지 목적

미국 뉴욕·뉴저지(NY·NJ) 항만당국은 향후 컨테이너화물 취급량 증가에 대비한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북미 동해안에서의 중심항만으로서의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후의 토지 활용 등에 대한 검토 등 2009년초까지 끝낼 예정이다.

동 항만국의 수산 이사는 7월24일 전략비즈니스 평가위원회에 조사에 착수한 것을 보고했다. 조사는 항후 화물수요의 증가를 근거로 항만능력의 향상과 이로 인해 필요한 터미널 확보 등의 토지활용에 대해 재정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의 관점에서 실시하고,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시킨다.

토지활용에 대해 항만당국은 지난 3월 뉴저지 미나토히가시측에 있는 119 에이커(48만1,000평방미터)의 리스계약 토지를 매입해 새로운 컨테이너화물 용지로 취득했다.

차량의 취급에 대해서도 2020년에 67만4,000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2007년에 93만대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난 2006년에 실시한 수요조사가 크게 빛나감에 따라 항만당국은 재차 항만능력 확충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금년도 세계 신조선 발주시장 VLCC 등 탱커가 견인 올해 신조발주 VLCC 52척으로 대부분 한국조선소

2008년에 발주된 신조 VLCC가 52척에 달하는 등 탱커가 신조선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해사신문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시기 기준으로 △2010년 납기가 7척 △2011년 납기가 41척 △2012년 납기가 4척 등이며, 이들 선박을 수주한 건조야드는 대부분 한국조선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조선소의 경우 대형 조선3사의 발주 물량이 2011년 준공분은 거의 매진돼 스페이스가 없고 신규발주 교섭물량은 2012년 인도예정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재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과거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신조 선가 상승이나 금융기관의 용자긴축 등을 고려할 때, 신조 VLCC를 수주하는 조선소와 발주하는 해운회사가 각각 한정된 점이 탱커시장의 호황을 지속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드라이벌크 신조발주가 주류를 이루었던 지난 2007년과는 달리 2008년의 신조선 시장은 VLCC 등의 탱커가 견인중이다.

일본해사신문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VLCC의 신조발주는 7월28일 현재, 56척(마이너스 4척)이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4척은 한국 STX조선이 그리스선주로부터 수주한 32만 DWT급으로 납기는 2011년이다.

이 선주는 따로 발주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척

을 포함해 STX조선에의 계약금 지불이 막혔기 때문에 STX조선이 해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론(신용력이 낮은 개인용 주택용자) 문제로 야기된 금융 불안의 여파로 그리스선주가 자금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 계약건이 해지될 경우 2008년의 신조 VLCC 발주척수는 실질적으로 52척이 된다.

이와는 달리 2010년 이후는 국제규정에 의해 단일선체유조선이 거의 퇴출된다. VLCC의 경우, 현재 취항중인 단일선체구조는 약 120척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8년 신조 VLCC의 준공척수는 약 40척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공급량은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VLCC 마켓이 연초부터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약 70척의 VLCC가 준공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단일선체 VLCC가 VLOC(대형 광석선)나 해양구조물 FPSO로 개조되어 탱커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공급과잉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1년에 준공되는 신조선의 발주도 억제된 수준으로 VLCC 마켓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2012년에 준공되는 선박의 신조발주는 강재가격의 급등과 선박금융 제약, 유조선사들이 한정된 점 등으로 인해 현재의 신조선 마켓상황이 지속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 일본 톤세제 도입관련 선박, 선원확보방침 결정

## 일본적 외항상선대 5년안에 2배로 증강키로

일본 국교상의 자문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 해사분과회(분과회장 : 스기야마 타케히코 히토츠바시 대학장)는 7월17일 톤수 표준세제의 도입 등에 관계되는 일본 선박 및 선원의 확보에 관한 기본 방침을 심의한 뒤 확정지었다.

해사분과회는 톤세제 도입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일본적 외항상선대와 일본 선원 확보방안을 심의한 결과, 해운업계 전체의 목표치로서 일본적 외항상선대는 5년안에 2배, 외항부문 일본인 선원수는 10년안에 1·5배로 증강시키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정부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선주협회의 마에카와 회장은 해사분과회의 방침과 관계되는 심의안에서 “가능한 한 일본 선박 및 선원의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외항해운업계가 해상운송의 안정적 확보에 공헌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 해상운송법 및 선원법의 시행당일에 행해진 이번 분과회에서는 사전에 열린 간담회의 논의를 감안해 심의가 진행되었다.

톤수 세제적용 등에 필요한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특히 변경은 없었고, 외항부문 일본선적을 5년에 2배, 외항 일본인 선원수를 10년에 1·5배로 하는 것 등을 포함시키는 방침안을 국교상에 답신하기로 결의했다.

개정 해상운송법 및 선원법에서는 톤수 표준세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통정책심의회 해사분과회의 답신을 받아 국토교통성 장관이 정하는 기본방침에 의한 확보계획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 국교성 해사국은 7월중에 인정기준 등을 공표할 계획이며, 이 기준이 공표되면 톤수 표준세제로 연결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 동남아시아 강제수송 소형벌크선의 용선료 상승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강재를 수송하는 근해벌크선의 용선료가 상승하고 있다. 소형벌크선의 용선료가 이같이 상승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강제 수송수요 증가와 원양 벌크선의 시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만DWT급 소형벌크선의 1일 용선료는 최근 1만2,000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동남아역내에서 선박연료유가 톤당 700달러를 웃돌고 있어 근해선사들의 채산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근해선사들은 지난 2월에 일본의 철강메이커와 일본에서 수출되는 철강재 운임을 톤당 6~10달러의 가격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도착지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일본의 2007년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4·7%증가의 3685만톤으로 집계되었다. 근해벌크선의 용선료 상승은 아직까지도 원양벌크선에 비하면 부진한 편이다. 근해벌크선보다 대형의 외항부정기선은 5만~6만 중량톤급의 핸디막스형의 주요 4개항로 평균 용선료가 1일당 5만7,000달러 전후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편, 철강 메이커와의 운임계약은 연도 단위가 기본이며 벙커가격의 상승은 연료유 할증요금(BAF)에 의해 일부 보전되지만, 보전분의 요금은 차년도에 정산되기 때문에 근해선사들의 채산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